

영국 군복에 관한 연구

- 고대와 중세시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mour of Great Britain

- from the ancient to the middle age -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이 은 숙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 수 박 재 옥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lsan Univ.

Instructor : Eun Soo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

Prof. : Jae Ok Park

<목 차>

I. 서 론

II. 고대 군복

III. 중세 군복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ot only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armours design, item, and material but also the social change which was represented them from the ancient to the middle age.

The result of the study as follows : 1. In the ancient, a painting, tattooing, and scar had used to express a threatening attitude or fear instead of armour. Also the natural material including leather and fur had used for armour's material and it caused by their life style.

2. The change of war method and appearance of new arms introduced the various kinds of armours, helmets, materials, etc.

3. In various parts of Europe, armour's design and material were indicated similar character.

4. Armour's color and a flag were used by a means that distinguish between

region and nation.

I. 서론

복식은 형태를 갖춘 인공물로서,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 문화, 기술의 발달, 종교, 가치관, 관습 등을 표현해주는 의미의 전달체¹⁾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역사를 밝혀주는 훌륭한 가치적 수단이다.

군복 역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외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변화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군복이 갖는 상징적 의미, 즉 군대의 명령과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지령의 기능, 동지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친교의 기능²⁾, 계급표시의 기능, 신체의 보호기능, 소속집단의 일원임을 나타내주는 기능 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기능을 지닌 군복은 특히 다른 용도의 복식에 비해 강압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실질기능을 위주로 한 복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복이 실질기능을 위주로 한 복식이라고 하여도 인간은 기본적인 본능인 창조성을 지니고 있어 美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美의 표현은 고대 군복에도 항상 포함되어졌으며, 용도에 따라 더 강조되기도 하여 군복에도 패션이 뒤따르게 되었다.

미개사회에서 문명사회로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문명은 전쟁을 통하여 타문명의 요소를 약탈함으로써, 독자의 개성을 갖기도 하며 또는 서로 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쟁은 한 국가의 문화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쟁시 착용되었던 군복형태를 통해서 한 국가의 사회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복은 문화적 영향, 신념, 권력의 구조를 나타내주는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시대에 따른 군복의 디자인변화에 관한 연구는 복식

사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군복은 완전한 형태의 보존이 사실상 어려운 까닭으로 순 시대, 모든 나라의 군복의 발달사를 완전하게 규명해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영국은 유럽에는 속하나 지리적으로 이들 국가들과는 고립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 타종족과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져, 군복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군복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여, 그림, 문헌,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통하여 고대 영국의 군복형태의 근본적 특징을 통하여 군복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대 군복

1. Brython 군복

브리튼(Brython)은 브레튼(Breton)이라고도 하며 켈트인(Celts)의 두갈래의 주류중 한갈래이다. 그들은 앵글족, 색슨족, 주트족의 침입이 있기전 B.C. 6세기부터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거주한 부족으로, 웨일스계 켈트인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³⁾. 브리튼이란 말은 기원전 325년에 그리이스의 탐험가 피테아스(Pytheas)가 영국에 상륙했을 때, 문신을 한 사람의 나라 Pretanikai nesoi라고 명명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온 것이다. 역시 고대 로마인들도 이들을 색칠한 사람 Picts, Picti라고 불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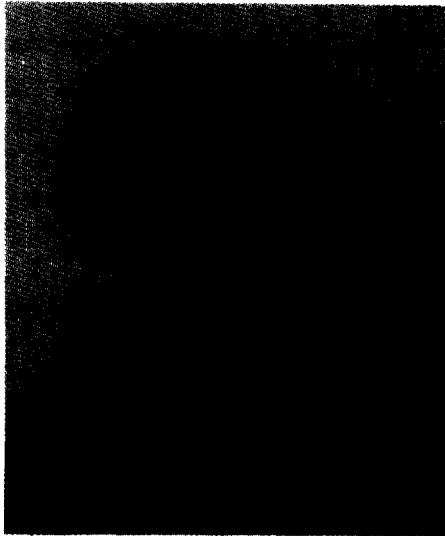
초기 브리튼족은 군복을 대신하여 바늘끝으로 몸을 찔러 문양을 새기고 찌른 부위에 여러 색의 약초

1) 한명숙, "복식의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3권제1호, 복식문화학회, 1995, p.25.

2) 한명숙, 상계서, pp.23-24.

3)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 사전,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1993), p.438.

4) Mouro B. Andre, 신용석 역, 영국사, (서울: 흥성사, 1982), pp.15-16.



〈그림 2〉 A Briton of the Interior,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22.

생활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기때문이다. 전사들은 인공적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런 형태 그대로의 동물가죽을 둘러입어 용맹스러움을 과시하기도 하며 신체를 보호하기도 하였다.

영국 남부지역의 Belgic 브리튼족의 군복은 고울족과 켈트족이 많이 사용한 갈색기를 띤 노란색계통의 수놓아진 tunic 또는 pais를 입고 어깨에는 격자무늬의 sais 또는 sagum을 둘러다〈그림 3〉. Sagum은 켈트어인 saic에서 나온 말¹⁰⁾로, 고울족이 입을 mantle을 받아들여 병사들이 주로 사용한 짧은 외투이며, 오른쪽 어깨나 가슴중앙에 금속핀으로 고정시켰다. 하의로는 몸에 꼭맞는 바지인 llawdyr 혹은 braccæ를 입었으며, 이를 아일랜드인은 Brigis, 로마인은 Brages, Braccæ로 불렀으며, 후에 Breeches로 되었다.

바지는 유목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인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에 의해 바지가 페르시아에 전파

되었고, 이슬람교의 전파와 더불어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서구로 전파되어 나갔다¹¹⁾. 이는



〈그림 3〉 A Belgic Briton,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17.

보온적이고 기능적이라 우수한 특징을 갖고있어 기마민족과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병사들도 착용하였다.

신은 발목까지 오는 형식이 많으며 피혁, felt, 말리지 않은 가죽 등으로 만들어졌다.

장신구로는 꼬은 모양의 둥근 목걸이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왕족과 성직자만이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군인에게도 허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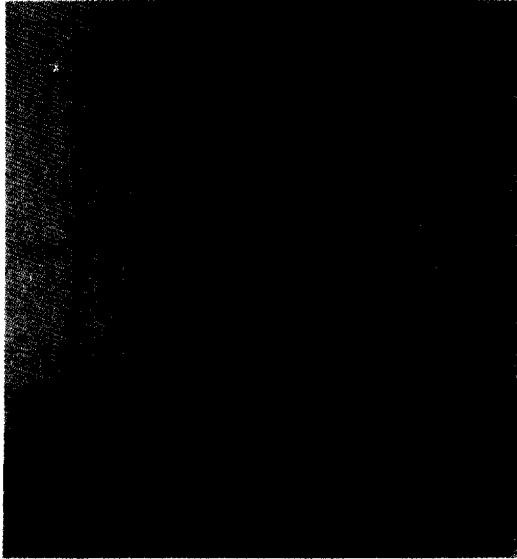
머리에는 Capan Cymicyll 또는 뿔모양의 모자를 썼다. 머리에 쓰는 모자의 어원은 아일랜드의 caban, cabin, 영국의 cab, hut에서 파생된 것¹²⁾으로 오래된 집을 뜻한다. 서양인들은 고대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초가집은 자연의 위협이나 어두운 밤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이점에 착안하여 더위나 비 또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위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콘(corn)모양의 모자를 쓰게 되었다. 고대의 영국인들도 역시 골풀로 만든 오두막에서 살았는데 이 모양을 본떠 골풀다발로 만든 원뿔모자인 capan을 즐겨썼다. 이러한 뿔모양의 모자는 앗시리아인의 투구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

10) Charles Hamilton Smith, 상계서, p.18.

11) 박춘순, "바지의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제11회 국제복식학술요지, 한국복식학회, (1992), p.155.

12) Charles Hamilton Smith, 전계서, p.18.

즙을 짜넣어 동물형상을 나타내는 문신<그림 1>, 채색, 상흔 등을 몸에 새겼다. 그들은 온갖 살아있는 생물그림을 여러 방법으로 몸에 새겼기 때문에, 신체에 새긴 문양을 보이기위해서라도 옷을 입지 않았을 것⁵⁾으로 추측된다.



〈그림 1〉 Maë ata and Caledoniam,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25.

이시기에는 그들은 거의 나체상태였으며 그들 모두 대청(wood: 파란 물감을 추출해내는 표본 식물)으로 자신들을 푸르게 칠함으로써, 전쟁시 적에게 더욱 무섭게 보이도록 하였다⁶⁾. 또한 그들은 옷입는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으나, 허리와 목주위에 훌륭한 장식이자 富의 상징인 쇠사슬 형태의 부속품 등의 장신구를 하여 용감스러움을 과시하기도 하였으며,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 장식한 다른 종족들 만큼

이나 이를 자랑스러워 하였다.

미개사회 또는 자연환경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 그다지 중요시 되지않은 지역에서나 의복의 발달이 느린 지역에서는 전쟁시 적군과 아군과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 적들에게 공포감 또는 위협감을 주기위해, 자기자신의 내부적 두려움을 없애기위하여 신체에 채색, 상흔, 문신 등을 하여 군복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브리튼족은 차츰 목축업을 생활수단으로 삼게되면서부터 전사들은 토착어로 Brych라고 부르는 얼룩소 또는 점이 있는 소가죽을 절치기 시작하였다<그림 2>. 일부 브리튼족은 Brych 대신에 Ysgyn을 입기도 하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의 가죽이름으로, 특히 곰가죽을 지칭하기도 하며 혹은 Mantell 이나 양가죽 소재로 된 Cloak⁷⁾일 것으로 추측된다. 후에 Mantell은 점점 더 짧아져서 말을 탈 때만 착용되었으며, Mantell werddoing, Irish mantle, Mantell gedenawg, 거친 털 소재로 만든 Cloak 등으로 불리이기도 하였다. Brych, Ysgyn, Mantell은 주로 여름에 착용되었다.

그들은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호전적인 종족이어서 차츰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다⁸⁾. 그러나 동물가죽은 보관시에는 병충의 피해가 있어 새로운 보관방법이 필요하였다. 즉, 털에서 가죽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Ruchen(가죽으로 만든 옷)이라 불리졌다⁹⁾.

미개사회 단계에서의 각 종족들은 채색, 상흔, 문신 등의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생활주변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연소재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북서유럽일부와 북유럽에 있어서, 가죽과 털은 군복을 비롯한 복식의 소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후와 그들의 일상

5) G. Julius Caesar, *Commentaries of his Wars in Gaul and Civil War with Pompey*, 7th., trans. Martin Bladen; P. and P. Knapton, London, 1750, p.84. quoted in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139.

6) G. Julius Caesar, 상계서, p.138.

7) Charles Hamilton Smith, *Ancient Costume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ew York: Arch Cape Press, 1989), p.12.

8) Charles Hamilton Smith, 상계서, p.16.

9) Charles Hamilton Smith, 상계서, p.16.

일랜드에서는 이러한 모자를 Biorraid라고 불렀으며, 오랫동안 착용되었고 아일랜드의 투구 원형이 되었다.

영국 남부해안지역의 거주자들의 의생활은 고울족과 매우 비슷하였다. 고울족은 거친 울을 매우 두껍게 짜서 겨울용의 cloak으로 만들었으며, 가는 울로는 다른 종류의 의복을 짜기도 하였고 여기에 여러 색상으로 염색을 하여 줄무늬 또는 격자무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늬는 오늘날 웨일스 지역 농부들의 가운, 페티코트, 에프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격자무늬는 각 종족의 가문표시로 수백종에 이르며 모두 각기 대표하는 격자배색과 격자형태를 가졌다. 격자의 형태는 반드시 대칭형을 띠어야 하는데¹³⁾ 현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전통 모직물의 하나에 속한다. 줄무늬나 격자무늬로 만들어진 천을 고대 브리튼족은 Brycan 혹은 Breach, 아일랜드인들은 Breacan, 로마인들은 Braccae로 불렀다¹⁴⁾.

고울족은 방적이나 직조를 하지않고 울을 펠트상태로 하여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브리튼족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펠트는 매우 튼튼하고 탄탄하여 칼이나 불에 대해 보호 소재용으로 적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펠트의 사용에 대한 증거는 B. C.6500~6300으로 추정되는 벽화에 표현된 펠트 아프리카 모티브에서 찾을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펠트는 철기시대로 올라가며, 펠트시트는 홀란드, 노르웨이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로마인과 그리이스인들도 펠트에 관한 지식이 있었으며, 로마군인들은 펠트로 된 갑옷의 턱받기, 튜닉, 부츠, 양말 등을 착용하였다¹⁵⁾.

이 시기의 투구형태는 끝이 구부러진 장식물이 달린 청동 투구로 <그림 4>, 때론 말털로 만들어진 깃털이 투구의 윗부분에 장식되었다. 이것은 방패에 그려진 문장과 더불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데 사용되었다¹⁶⁾.



<그림 4> Bronze horned helmet found at Vikso, 20,000 years of Fashion, p.144.

그들은 상의로 모피로 안을 대고 목둘레와 밑단에도 털이 달린 cloak 또는 mantell gedenawg를, 하의로 바지를 입었다.

길이가 짧고 간단한 디자인의 cloak과 고대 고울족이 이용하였던 쇠가죽이나 거친 양털로 만든 밀착형 바지인 llawdyr 또는 brigris는 말을 타고 가다가 걸어서 싸움을 할 경우, 말에서 내리기 쉽도록 기능성을 부여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유라시아 스텝지역의 유목민들을 비롯하여 고울족, 게르만족 등의 기마민족의 복식에서 이런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Charles 1세때의 시민전쟁시 고지 스코틀랜드 지방의 군인들도 이러한 복식들을 착용하였다.

이처럼 고대군대의 주력은 주로 보병이나 일부 기병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행할 때는 말을 타고 내리거나 또는 걸기에 편리한 군복, 즉 길이가 짧거나 간단한 밀착형의 디자인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종족간의 접촉은 군복의 형태나 소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소재나 기구의 명칭도 주변의 지역과 공통어 혹은 유사음으로 불리워지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브리튼족은 로마의 침입으로 모든 것이 로마화가 되었으며, 군복에서도 로마양식이 깃든 cloak과 sagum이 착용되었다. 이전의 군복무늬는 격자무늬가 많았으나 차츰 무늬가 없어지면서 고울족이 사용하였던 빨간색이 널리 사용되었다. 게르만의 앵글족, 색슨족, 주트족의 침입 후까지도 로마양식은 어느 정

13) 설수진, “격자무늬복장의 재단기술상의 突破”, 제11회 국제복식학술요지, 한국복식학회, (1992), p.134.

14) Charles Hamilton Smith, 전제서, p.16.

15) Vickery Anne Einset, Felting by Hand, (California : Craft Works Publishing, 1987), p.vii.

16) Arther Frill, 이춘근 역,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학술총서 29, (서울 :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0), p.29.

도 군복에 남아있었다. <그림 5>는 고대 영국여성의 유물중 하나로, 약 11인치의 직경과 4.25 온스 무게를 지닌 청동으로 만든 가슴가리개판이다. 이것은 독립을 위해 로마군대와 싸우다가 A.D. 62년에 패전으로 사망한 브리튼족의 Boadicea 여왕시절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것은 전쟁무기로부터 여성들의 가슴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胸甲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 British female relic,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53.

군대는 계급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군복소재는 계급구별을 상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시기의 지배계급의 갑옷소재는 주로 가죽이며, 낮은 계급의 것은 Octa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털이나 줄무늬 천이 이용되었다 <그림 6>. 이 그림에서 오른쪽 군인은 갑옷의 가슴받이 부분이 2 조각으로 되어있고 양쪽가슴에는 금속 더블단추가 달려있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코가리개가 붙은 작은 반원형 모자를 썼는데, 모자의 양옆에 2개의 긴 털이 꽂혀있다. 깃털이 꽂힌 투구는 B.C. 2700년경 Agade왕인 Naram-Sin의 투구와 달단족의 투구에서 볼 수 있다.

유럽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섬나라 영국은 대륙의 여러 민족들 - 선사시대에는 이베리아인이 문화의 흔적을 남겼고, 뒤이어 켈트인, 로마인, 게르만인, 노르만인이 서로 융합하는 가운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한편 북쪽과 서쪽에 초기 정착 민족인 켈트인은 그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서쪽 웨일스 산악지방에 정주한 켈트인은 B.C. 55년, 54년 2회에 걸친 로마 속주 지사인 케사르의 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로마의 문화에

흡수, 동화됨에 따라, 군복에서도 로마의 웅장함과 남성다움을 나타내주는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그림 6> Military costume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73.

있다.

또한 전쟁을 통한 접촉은 군사기술 및 새로운 공격무기를 등장시키게 되며 따라서 새로운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방어용 갑옷과 여러 형태의 투구가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브리튼족은 옛날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추운 섬에 살고있던 켈트계의 한 맥이나 전쟁에 의해 복식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이나 부속품에는 전쟁의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났으나, 예술미는 오히려 결여된 편이었다¹⁷⁾. 브리튼족은 로마의 침략 이후 부터는 이전에 썼던 뿔모양의 모자대신에 투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투구의 형태는 상부를 낮추고 눈을 보호하기위해 이마부위를 돌출시킨 형태이며, 이를 penguwch라 불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enguwch는 남자들에게서는 잘 착용이 되지않았고, 철면의 관형태의 hatyr. ata. hat을 새로이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군복은 엉덩이 길이의 튜닉과 긴 바지를 입고 무릎아래를 가죽끈으로 묶거나 때로는 다리에 X자형으로 감기도 하였다. 지배계급은 로마인들이 착용한

17) 이정옥의 2인, 신교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5), p.92.

胸甲과 비슷한 형태의 첼로 만든 胸甲을 착용하였다. 로마인들의 胸甲은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제정 시대하에서 착용된 胸甲은 2개의 커다란 금속판이 가슴을 덮은 형태이었다. 전사들은 보통 목걸이를 하였고 때론 갑옷위에 털가죽, 날가죽, 모피, 천 등으로 된 surcoat를 덧입었다.

부하들은 다리에 밀착되는 바지와 발을 따뜻하게 하기위해 마른 풀로 밑바닥을 칸 생가죽 신발이나 부츠를 신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의 농부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신발을 신고 있다. 이 풀은 천대신 양말대념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패션의 기원이 되었다.

2. Anglo - Saxion 군복

앵글로 색슨은 튜튼계의 일파로 5세기경 영국에 건너가 토착민인 켈트족을 정복하여 앵글로 색슨 7 왕국을 세웠다.

이교도 색슨계급의 복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馬甲형태의 각이진 투구이며 지금의 원추형 모자로 추측된다. 그들은 신체를 보호하는 쇠갑옷을 입지 않았으며, 모피로 만든 surcoat, 천으로 된 짧은 tunic을 군복으로 착용하였다. 그들은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쇠갑옷대신으로 천소재의 군복을 입었던 까닭에 넓은 방패가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후에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지닌 갑옷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교도 색슨 지배계급의 군복을 살펴보면 surcoat 갑옷의 소매 진동돌레와 가장자리에 scallop모양의 디테일이 디자인되기도 하며, 갑옷안에는 tunic을, 胸甲위에는 풍성한 cloak을 입고 피브라로 고정시키곤 하였다.

지배계급은 胸甲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수놓은 무늬정도의 tunic과 바지를 입고 바스킨 혹은 긴 양말을 신었다. 투구나 모자는 일반적으로 가죽, 털로만 들어졌는데, 후에는 금속재료가 이용되었다. 형태는 프리지안 모자형, 원뿔형, 툽니모양으로 여러 색이

사용되었다(그림 7). 앵글로 색슨족은 전체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쇠로 만든 갑옷이나 투구가



〈그림 7〉 David. Redrawn from Golden Psalter of St: Gall. Ninth century. History of costume, p.143.

없이 천으로 만든 짧은 튜닉을 군복대신으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신체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창, 칼, 방패였다(그림 8). 그러나 그들은 로마와의 접촉이 후로 로마가 남겨놓은 인공물을 받아들여 흉갑과 투구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바지착용이 보편화되고 후드와 mantle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로마의 군복인 튜닉과 후드 형태인 cloak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⁸⁾. 무장하지 않을 때는 호박색의 구슬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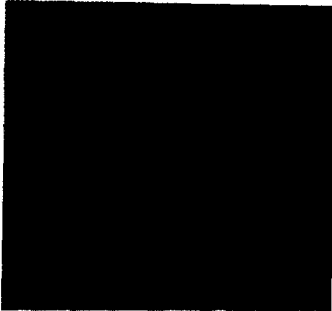
〈그림 8〉 Eleventh Century Costume, History of Costume, p.150.

18)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p.128.

든 **화환모양**의 관을 쓰게되며 목에는 **황금 목걸이**를 하였다.

3. Anglo - Danish 군복

데인족의 생활체험으로 흥미하게 수놓아진 잉글랜드는 계속된 외부종족의 침입과정을 거치면서 11세기초 앵글로 색슨족과 데인족이 혼합되었다. 데인족의 침략은 앵글로 색슨지배하의 영국에 직업군인 계급의 형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색슨족하의 병사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데인족의 침공이후 병사로서의 장비가 일반 농민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군인의 임무는 한 계급의 직업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데인족은 투구를 쓰지않았으며 짧은 tunic을 입었고 차츰 목둘레와 밑단에 수 장식을 한 tunic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9〉 The Apocalypse of Saint Sever, Eleventh century, 20,000 years of Fashion, p.182.

데인족의 영국지배 말기(1035년)에 착용된 갑옷은 가죽으로 만든 튜닉형 갑옷으로 금속선을 교차시켜 갑옷전체를 엮은 갑옷(그림 9), 천 비슷한 신축성있는 소재로 턱과 몸을 감싸고 전신은 쇠사슬 갑옷이나 비늘모양의 갑옷(그림 10), Sarmation 처럼 단순히 누빈 갑옷 등 이었다. 투구는 앵글로 색슨의 것보다는 더 둥근 모양의 투구를 착용하였다.

이전의 군복소재는 천으로 된 신체보호용의 surcoat를 입었으나, 이시기에 이르러서는 턱과 어깨를 감싸는 쇠사슬 갑옷, 쇠미늘 갑옷, 고리와 비늘모양을 박은 쇠사슬 갑옷, 누빈 갑옷 등의 디자인이 나

타나기 시작하며, 금속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Tapestry of Queen Matild, Late eleventh century, 20,000 years of Fashion, p.182.

III. 중세 군복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 1세는 영국왕위 상속권을 주장하여 영국에 침입하여 앵글로 색슨왕을 웨이스팅에서 격파하고 윌리엄 1세로 즉위하여 노르만 왕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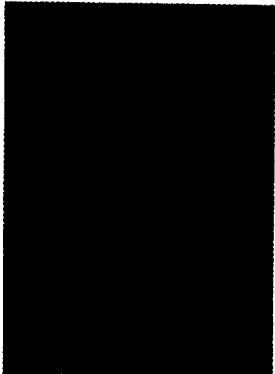
노르만인들의 영국침입은 군복에 기능성을 갖추게 한 계기가 되었다. 노르만인들의 군복은 코가림을 가진 원추형 투구와 쇠사슬 갑옷으로, 영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보다 나은 그들의 군사복식을 영국에 전래함으로써, 영국의 군사복식은 더욱더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노르만인들은 이미 이슬람교들이 발달시킨 직조기술을 더욱 개발하였고 그리이스, 비잔틴, 근동으로부터 직조자들이 오도록 장려한 만큼 다른 지역의 군사복식에 비하여 매우 발달하였다.

1. 13세기 군복

이시기는 십자군의 원정에 자극을 받아 군복이 매우 발달하여 갑옷이 인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금속판 갑옷으로 되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갑옷 아래에 입은 옷은 자연히 몸에 꼭 맞도록 곡선의 진동둘레와 허리가 들어가는 입체디자인의 의복이 개발되었다.

이 시기의 surcoat 디자인은 아랫단에서 엉덩이까지 트임이 나있어 허벅지 중간쯤에서 끝나는 hose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말을 탈 때 활동의 편리함을 주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사의 복식은 쇠사슬 갑옷위에 소매가 있거나 짧은 소매가 달린 surcoat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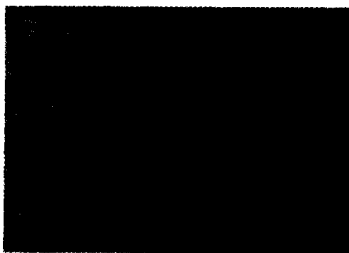
입었다. 쇠미늘 또는 비늘모양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중세의 쇠사슬 갑옷은 13세기 중엽무렵부터 점차 더 세련되어 갔으며, 투구는 앞부분에 面甲을 달거나 투구앞부분에 코가리개판을 붙이기도 하였다. 13세기말에는 딱딱한 판들이 갑옷에 첨가되었다.



〈그림 11〉 Investiture of a Knight, History of Costume, p.170.

중세 영국기사의 임명식에서 기사들은 2개의 튜닉을 입게된다〈그림 11〉. 안의 튜닉은 각진 목선을 하고 있어 바깥 튜닉을 강조한다. 이 그림에서 13세기의 전형적인 기사머리 모양을 볼 수 있다.

귀족계급의 군복은 머리와 목을 감싼 쇠미늘 갑옷, 금속판의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며, 쇠미늘 갑옷위에 짧은 surcoat를 덧입는다. 기능적인 목적으로 surcoat에 깃트임을 주게된다〈그림 12〉. 또한 그들은 모자에 가는 띠를 장식하여 그들의 신분을 표시하였다.



〈그림 12〉 Victory of Humility over Pride Twelfth-century, 20,000 years of Fashion, p.185.

따라서 이시기의 군복은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소재 역시 유연성과 굴곡성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신체를 보호하도록 견고한 금속판이 쇠미늘 갑옷에 부착되어 이후의 딱딱한 금속으로 만든 쇠갑옷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과도기적 갑옷은 헨리 3세의 통치말엽에서부터 에드워드 3세초까지 계속 착용되었다. 딱딱한 금속판으로 된 정강이받이, 腕甲, 무릎가리개개 쇠미늘 갑옷에 부분적으로 부착되었다. 또한 투구는 끝이 뾰족한 원뿔형으로 面甲이 달려있지 않아 투구 앞부분에 십자章 등의 문양을 새겨 그 문양에 가로 틈을 뚫어놓아 틈사이로 밖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3〉.



〈그림 13〉 Forms of the Helmet, Handbook of Ornament, p.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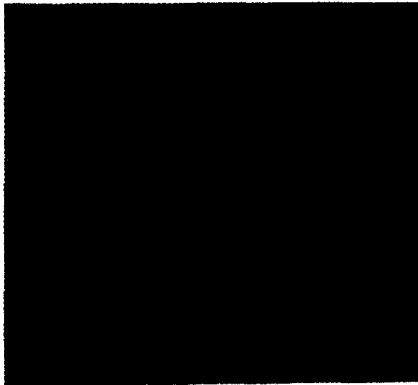
2. 14세기 군복

프랑스의 차알스 6세가 프랑스 기사대와 폭동에 가담한 파리시민을 무장해제할 때 획득한 갑옷을 스코틀랜드로 보내기전까지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갑옷이 널리 착용되지 않았다. 갑옷이나 surcoat에는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紋章이 새겨졌다. 문장은 투구를 썼을 때 서로 식별하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전장에서 동족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사용되었지만, 그후 기마시합에서 그들의 가족이나 자신의 가문을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문장은 12세기초 이전 기사와 귀족들은 자신들의 방패에 어떤 도안을 하기 시작하였다¹⁹⁾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순수한 장식적 목적으로 도형이 디자인되었으나 후에 문양이 체계적으로 되고 귀족들이 유일하고 구별이 가능한 방패를 가지려는 욕구에 의해 문장은 차츰 가문과 신분을 나타내는 구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문장은 방패에서 시작하여 surcoat, 나중에는 갑옷과 말장식에 사용되었다. 문장의 유행은 대단히 확대되어 장식과 신분상징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겸하였다.

이와 같은 문장의 유행은 의복을 상하 좌우로 나누어 색채를 달리하거나 문장을 부분적인 장식으로 이용하여 14세기초에는 갖가지 색으로 물들인 의복을 낳게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4세기 중엽에는 투구둘레 부위에 화관이나 꼬은 장식을 두르곤 하였고 옷에는 신분, 가문, 지위를 상징하는 배지와 상징물 등이 surcoat와 방패에 표현되어졌다 <그림 14>.



<그림 14> Scenes from medieval life in an illumination in the Manesse manuscript, Fashion, p.70.

이시기의 일반적인 기사복은 두건위에 모자를 쓰고 갑옷위에 surcoat를 입고 그위에 외투를 걸쳤다. 고대에 착용된 surcoat는 갑옷의 역할을 하였으나 급속의 갑옷을 착용하면서부터 surcoat는 강렬한 햇빛의 반사를 막기 위하여 갑옷위에 입은 것으로, 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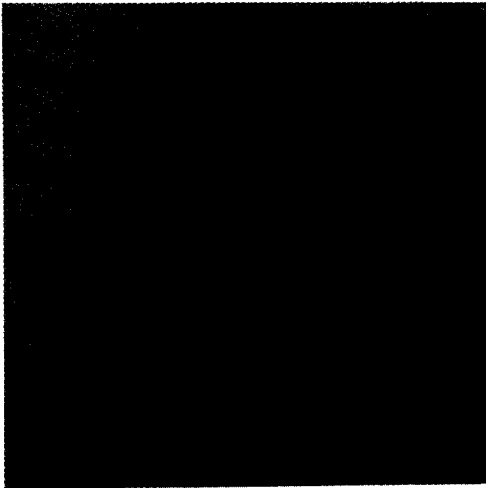
형의 천을 반으로 접어 중간에 목이 들어가도록 구멍을 내어 양쪽어깨에 걸친 것으로 버클이나 끈으로 고정시켰다.

직업기사는 자신의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새겨진 surcoat를 입지못하였으며, 싸움을 할 때는 망토를 두르지 않게되나 문장을 옷가슴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 등뒤에는 십자가 도형을 새기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기사는 자신의 명예와 신분이 문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옷가슴에 문장을 부착하는 것도 처음에는 허용이 되었으나 후에는 이것마저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방패와 旗에는 紋章이 그려졌으며, 이것들은 기사들이 꼭 갖추어야할 고대 기사 복식품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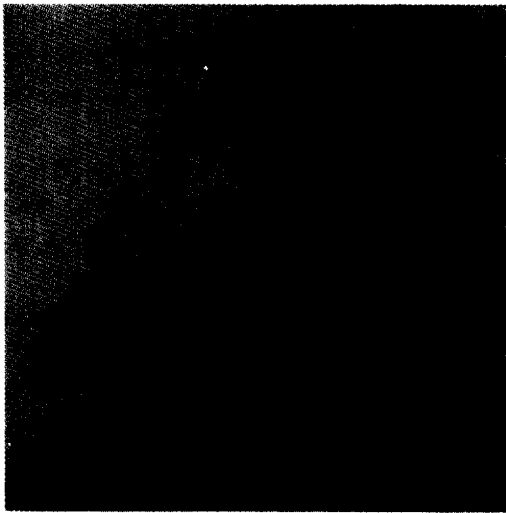
이시기의 surcoat는 14세기 유행한 parti-color를 이용하여 바탕면을 분할하였는데, parti-color는 14세기에 작위가 있는 가문들이 세습적으로 결혼을 했기때문에 가문과 가문의 문장을 합친 문장을 표시하기 위하여 면을 분할하였고 분할된 면에 색을 달리 표현하였다 <그림 15>. 이그림에서 surcoat와 방패에 영국과 프랑스의 문장이 1/4씩 그려져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문장이 함께 표현된 것은 플랜더즈 지방의 도시공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영국의 주요산물은 양모였고 플랜더즈의 주요산업은 모직물의 직조와 가공기술이었다. 이처럼 영국과 플랜더즈는 불가분의 관계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서로 관련이 되자 Jacob Van Arteveld는 영국문장에 프랑스 문장을 첨가할 것을 권고한 결과 영국의 사자와 프랑스의 백합문장을 같이 넣게 되었다.

또한 이시기에 투구꼭대기에도 가문을 상징하는 장식이 투구에 표현되었는데, 이 그림에서도 정면을 향한 사자가 투구꼭대기위에 장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투구에 매달는 투구끈개, 투구의 앞쪽이 장식은 왕족을 상징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대상물로서, 이 동일한 형상을 말머리위에도 장식하였다 <그림 16>.

19) Arthur Charles Fox-Davies, *Heraldic Designs*, (New York : Crescent Books), 1988., p.3.



〈그림 15〉 Edward prince of Aquitaine & Earl of Chester,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149.



〈그림 16〉 Thomas, Earl of Lancaster, Ancient costum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135.

3. 15세기 군복

15세기는 백년전쟁의 패배와 랭카스터, 요오크 양가의 왕위계승권을 에워싼 장미전쟁으로 정치가 불

안정하게 되고 그동안 봉건제후는 상급 갈등으로 몰락해가는 한편 영주적 규제로부터 해방된 농민적 부르조아적 경제가 발달되었다.²⁰⁾

15세기가 되자 짧은 의복이나 심을 넣은 의복이 모든 계급에 널리 애용되었고 이 유행은 원래 武裝의 영향이었지만 이시기에 일층 강조되어 군복의 상의의 길이는 짧아지고 신체의 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군복, 旗에 그려진 문장이나 군인의 자켓 색상은 국가간, 지역간의 구별로서 이용되었다.

이시기의 군복은 일반적으로 쇠미늘 목가리개가 달린 테두리가 없는 모자와 面甲이 부착된 투구, 쇠갑옷위에는 짧은 surcoat, 갑옷의 腕甲, 갑옷에 딸린 긴 장갑, 갑옷의 넓적다리 가리개, 무릎부분과 정강이를 감싸는 가리개, 칼을 고정시킬 수 있는 벨트 등이 포함되었다.

이시기의 군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歩兵은 군복의 가슴과 등부분에 그려지는 영국의 붉은 십자章으로서 구별된다. 유니폼 또는 구별될 수 있는 상징물은 전쟁중에 상대방과의 구별을 하기위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Ghent족의 John Lyon은 반란모의 하기위해 그의 추종자들에게 서로를 알 수 있도록 흰 후드를 쓰도록 하였다. 장미전쟁동안 영국인들은 배지를 달았는데 에드워드 4세를 비롯한 시민들은 금으로 만든 해모양을, Bosworth 전쟁에서 Norfolk가의 공작은 유니폼 자켓을 입었다.

런던의 旗는 원래 흰색바탕에 붉은 색의 십자章이었다. 런던 歩兵隊는 그들의 갑옷에 똑같은 문장(cognisance)을 달았다. 런던의 歩兵隊가 커지고 가장 유능한 사수대로 되어짐에 따라 그들의 복식이 모든 국가의 歩兵隊의 복식양식으로 착용되었다. 그러나 코트의 색깔만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지 않았다. 이것은 영국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제복중 십자章이 새겨진 청녹 자켓이 있는데, 이것은 흰색의 자켓만큼이나 사용되어졌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빨간 십자章을 런던의 상징으로 삼은 영국은 프랑스에게는 영국의 旗 색깔과 반대 즉, 흰색의 십자章

20) 조상설, 세계사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2), p.791.

을 하게하여 영국과의 구별을 하게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초기에 흰색의 스카프를 돌렸고 Philip de Commines 시대에 파리인들은 흰색의 십자장이 새긴 빨간 자켓을 입었다. 다른 국가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십자장을 표현하였다. 플랑드르 지방의 사람들은 녹색의 십자장을, 부르고뉴지방은 은백색 바탕에 붉은 색 십자장을, 독일인들은 은백색 바탕에 검은 색 십자장을, 나바르인들은 붉은 색의 십자장을, 스코트족은 남청색 바탕에 은백색의 십자장을, 스페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꽃모양의 도형으로 장식한 붉은 색의 십자장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십자장의 도형이나 색상에는 지방, 국가간의 구별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위의 연구과정을 통해 군복 디자인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미개사회에서는 적에게 위협감, 공포감을 주기 위해 문신, 상흔, 채색 등을 하여 군복의 기능을 대신하였고 또한 그들 자신들의 생활양식은 군복의 소재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목축업을 생활수단으로 삼은 브리튼족은 군복 소재를 동물가죽이나 털 등의 자연그대로의 형태로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고대 영국의 군복은 여러 종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군복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침입자의 새로운 무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방어용 갑옷이나 투구, 소재가 개발되었거나 우수한 종족의 군복양식에 동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3. 한 민족이 여러 갈래로 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들의 군복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고대 영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군복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4. 군복의 색상이나 旗의 문장은 지방간, 국가간을

구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박춘순. "바지의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제11회 국제복식학술요지, 한국복식학회, 1992.
- 2)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 사전. 서울:브리태니커, 동아출판사, 1993.
- 3) 설수진. "격자무늬 복장의 재단 기술상의突破", 제11회 국제복식학술요지, 한국복식학회, 1992.
- 4) 이정옥 외 2인. 신교 서양복식사, 서울:형설출판사, 1995.
- 5) 장연규. 세계의 국기와 국장, 서울:수산문화사, 1991.
- 6)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82.
- 7) 조상설. 세계사 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82.
- 8) 한명숙. "복식의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3권제1호, 복식문화학회, 1995.
- 9) Anne E. Vickrey. *Felting Hand*, California: Craft Works Publishing, 1987.
- 10) Arther Frill, 이춘근 역.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학술총서 29, 서울:도서출판 인간사랑, 1990.
- 11) Arthur Charles Fox-Davis. *Heraldic Designs*, New York: Crescent Books, 1988.
- 12)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 13)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7.
- 14) Hamilton Smith Charles. *Ancient Costume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ew York: Arch Cape Press, 1989.
- 15)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이화연 외 3인 역. 의복: 제2의 피부, 서울:까치, 1988.
- 16) Meyer Franz Sales. *Handbook of ornamen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57.
- 17) Wilcox, R.T.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eles Scribners Sons, 1958.